하루를 시작하며

선택에는 차선(次善)이 없다

좌 정 묵
시인·문학평론가

춘추시대 노나라의 미생(尾生)이란 청년은 개울가 다리 밑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로 했다. 궂은 날씨로 비가 쏟아지고 물이 다리 난간까지 차오를 정도였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기둥을 붙잡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버티다가 결국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다. 평소 믿음을 중시하고 신뢰가 돈독하기는 했어도 사람들의 입에 이 일화가 오르내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우둔함을 한탄하기도 했다.

'미생지신(尾生之信)'이란 고사성어의 배경이다. 이 고사(古事)를 '사기(史記) 소진열전'에서 소진이란 사람이 연나라 소왕(昭王)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사용했었다. 미생을 흔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서 말할 때 인용되곤 하는데, 미생의 처지로 본다면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삶의 선택에서 언제나 융통성이며 일관성을 두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최근 우리 정치 세태를 보고 있으면 30년, 20년 전과 그리 달리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당을 함께 이끌어갈 동지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는 의인처럼 보였지만 이제 1년 남짓 남은 총선 일정 위에 선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당이며 야당 모두 공천권을 위한 암투가 예와 다르지 않고 배지 하나를 위해 이들이 선택하려는 길은 신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으로 산불이 발생해 그 피해가 심각한데 제주에서는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란 이름으로 오름에 불놓기를 한다. 다행히 지난해는 전면 취소됐다. 그런데 올해 다시 행사를 계획했다가 행사를 며칠 앞두고 불놓기와 관련된 행사는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정부 담화문과 산불경보 '경계' 조치에 따라 부득이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불꽃놀이 등 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는데, 이게 아쉬운 일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선택의 상황을 피할 길은 없다. 일상의 문제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삶의 방향과 관련된 길을 놓고도 언제나 그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 차선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최선이라고 여기던 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 상황이므로 결국 최선일 수밖에 없다. 연인의 관계에서조차 차선은 없고 늘 최선을 선택한다고 해야 옳다.

미생에게는 물에 휩쓸려 죽게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는 최선이었다. 이 일화에 대해 사람들은 우직하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또는 순박하다느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셈이다. 오늘 정치인들의 공천권을 위한 자리 옮기기나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의 고집도 모두 그들에게는 최선의 길인 셈이다. 다만 그 선택에 품위며 인격이 가늠될 뿐이다.

사설

활기 잃은 제주관광, 새 돌파구 못찾나

제주경제의 핵심산업인 관광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수가 넉 달째 감소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특수'를 누려온 제주관광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 한국을 또다시 배제하면서 제주관광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2만18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05만5001명)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100만8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만1853명)에 견줘 4.1%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1만3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8명)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내국인 관광객 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에는 감소율이 낮아졌지만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관광이 활기를 되찾지 못해 큰일이다. 그래도 해외 하늘길이 열리고 있어 기대할만하다. 제주발 중국 노선도 재개된다. 이달부터 진에어의 제주~시안, 춘추항공의 제주~상하이 노선 등이 운항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도 봄철 성수기를 맞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관광의 '큰손'인 중국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사드 사태 이어 이번에도 겪고 있듯이 중국시장은 제주관광에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초질서 '전국 최하위' 불명예 털어내자

제주도가 기초질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음주소란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체감안전도 중 법질서 준수도는 전국 18개 시·도 중 2020년 17위, 2021년 12위, 지난해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점수로 보면 2020년 70.2점, 2021년 63.4점, 지난해 72.1점이다.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무려 1550건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노상방뇨 190건, 쓰레기 투기 123건, 인근 소란 62건, 무단횡단 51건 순이다. 이 외에도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호객행위 등이 86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제주는 청정하고 안전한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다. 더욱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초질서 확립은 시급하다. 특히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기초질서는 준수돼야 한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계도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등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안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덕목이다. 내가 먼저 지키고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소방차가 물 흐르듯 나아갈 수 있다면

문 경 수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화재최성기 이론과 응급환자의 골든아워에 따라 소방차는 시가지 곳곳에서 사이렌을 울린다.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위를 달리기도 한다. 물론 서럽게 울어댄다고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다. 현장까지는 아득하기만 하다. 강물이야 앞에 산이 있으면 양 갈래로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소방차는 눈앞을 양 갈래로 헤쳐 나가야 한다. 그게 현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흔히들 도로 위에 차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다.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사고 현장까지 가는 게 매 순간 '기적' 같은 일이어야만 할까.

도민들의 작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점멸하는 소방차를 보면 좌·우측으로 길을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주차) 전용구역이나 소방시설(소화전 등)에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출동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이뤄진다면 소방차는 어디든 나아갈 수 있다.

십시일반의 작은 도움이 모여 불은 한시라도 빨리 꺼지고 위급한 환자의 생명은 간발의 차로 되살아난다.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소방차는 강물의 유속처럼 흘러 어디에든 빨리 닿을 수 있다. 막힌 길이 될지, 물길이 될지를 만드는 건 결국엔 사람이다. 우리 모두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트렌드 맞는 들불축제 방향 모색해야"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 주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일 들불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주문한 데 이어 14일에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축제 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

강 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에서 들불축제를 준비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앞으로 축제 시기, 축제 진행 방법 변경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축제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제주도의 '15분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구성과 관련 생활권역별 전문지식과 대표성을 가진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업해 줄 것을 요청. 진선희기자

제주도 벤처펀드 조성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등 도내 혁신기업의 발전을 위해 벤처펀드 조성에 나서 주목.

제주도는 1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초청해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에너지 대전환 계획, 우주산업 육성, 지역 상장기업 육성 등 민선 8기 기업 육성 정책을 공유.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 방안 중 하나가 벤처투자 펀드 조성"이라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제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이태윤기자

부 고

오재원(자영업)·오재호(제주중앙고등학교장) 어머니 경주김씨 양녀(향년 98세)께서 서거 2023년 3월 13일 23시 3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3년 3월 16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3년 3월 17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3층)
▶장 지 : 성산읍 신풍리선영 가족묘지

아 들(故)오재철 며느리 김현주
오재원 이선임
오재호 김효순
딸 오숙자 사 위 김춘보
오무순 강흥우
嗣 孫 오정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용삼(前 한라일보 초대 편집국장 · 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15일

아 들 강길종 며느리 양정선
딸 강혜영 사 위 고영대
강혜경 홍종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 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